

안치홍 떠난 자리 원성만 남았다

‘안치홍발’ 후폭풍이 거세다. 8번 하면 안치홍을 떠올렸던 KIA 타이거즈팬들은 6일 ‘추억’을 잃었다. 고교를 갓 졸업한 어린 선수의 당찬 플레이는 팬들을 환호시켰다. 해태 시절 올드팬들의 발길도 다시 잡은 신성(新星)이었다. 안치홍은 KIA 팬들과 두 번의 우승 순간을 함께했고, 3개의 골든 글러브도 타이거즈에 선물했다. 안치홍은 관중석을 ‘오른쪽 왼쪽’으로 단결시킨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스타이기도 했다. 그가 사연 많은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우승 도전을 위해 잠실 타석에 섰을 때 팬들은 놀라운 응원을 보내줬다. 선수 자신도 ‘소름 돋았다’고 말할 정도였다. 팬들에게 안치홍은 10여 년의 ‘희로애락’을 안긴 선수였다. 불합리한 대표팀 탈락,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나홀로 활약, 아쉬웠던 2019시즌 등등. 김기태 전 감독은 안치홍이 군복무 하는 동안 8번을 임시 결번해 ‘8번의 가치’를 인정해줬다.

입단 첫해부터 활약...KIA 내야서 꾸준한 성적내며 2회 우승 선물 팬들, 10여년간 함께 희로애락...롯데 이적 지켜보며 구단에 배신감 선수들, 주축 타자·캡틴 홀대에 동요...팀에 대한 자부심 상실 우려

하지만 타이거즈에서의 20년을 이야기했던 선수는 롯데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은 채 주먹을 쥐었다. 2019시즌 내내 안치홍은 속앓이를 했다. 손바닥을 시작으로 경기 도중 발목, 손가락을 다쳐 제 기량을 발휘하기 힘들었고, 내부 목소리를 통해 ‘2루 불가론’이 튀어나왔다. FA 협상 과정에서도 묵묵히 기다리는 입장이었지만, 시세에 맞지 않는 금액을 부르는 욕심 많은 선수가 됐다. 야수 육성 성적이 신통치 않은 KIA에서 꾸준하고 성실하게 팀 자존심을 지켜줬던 선수는 시간이 갈수록 자존심이 상했다. 해를 넘겨 겨우 계약 조건을 제시받았지만, 일부 언론을 통해 언급된 것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다. 구단은 금액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도 못을

박았다. ‘안치홍, 김선빈에 올인하기 위해 FA시장에 뛰어들지 않았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수다’, ‘프랜차이즈와 팬들의 관심에 걸맞은 대우를 하겠다’던 구단의 이야기는 결국 다 거짓말이 됐다. 팬들은 수많은 추억을 선물한 프랜차이즈 스타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진심을 찾아, 고향이라 생각한 광주를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됐다. ‘8번의 추억’을 잃은 팬들은 상실감을 느꼈고, 앞뒤가 다른 구단의 처사에 분노하고 있다. 내부에 후폭풍도 거세다. 안치홍은 지난 6일 오전 라커룸에 두었던 짐을 챙기기 위해 경기장에 갔다. KIA 선수로 마지막으 로 챔피언스필드를 찾은 그를 보고 개인 훈련을 하

러 나온 선수들은 당황했다. 선수들 사이에 돌던 ‘구단이 안치홍, 김선빈 잔류에 관심이 없다’던 소문이 결과적으로 사실이 됐다. FA인 ‘100억 사나이’ 최정우를 제외하고 가장 꾸준하고 강렬하게 활약했던 주축 타자. 또 처음부터 KIA 유니폼을 입고 뽀 귀한 야수 프랜차이즈이자 ‘캡틴’이 홀대를 받고 짐을 꾸리는 모습에 선수들은 동요했다. KIA 선수라는 자부심과 팀에 대한 애정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는 가치가 없다는 것을 선수들은 목도했다. 결국은 팀이 아닌 개인을 위해 뛰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전달된 셈이다. KIA 구단은 지난 10여 년의 가치를 부정하고, 자산 가치를 스스로 깎았다. 구단이 단순 시장가치로만 거론하고 대우하는 것과 달리 ‘8번’은 타이거즈팬에게 각별한 애정의 변호였다. 팬들은 기계적인 경기 결과가 아닌 스타와 추억으로 산다. 팬들은 추억을 뺏겼고, 선수들은 팀에 대한 자부심을 잃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도쿄행 티켓 전쟁’ 시작

AFC U-23 오늘 태국서 개막
한국, 내일 밤 중국과 C조 1차전

2020 도쿄올림픽 남자축구 본선에 오르기 위한 한국 23세 이하(U-23) 축구 대표팀의 험난한 도전이 마침내 시작된다. 무대는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8~26일·태국 일원)이다. 도쿄올림픽 남자축구 최종예선을 겸하는 AFC U-23 챔피언십은 한국시간으로 8일 오후 7시 15분 태국 랑싯의 탐마삿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A조 이라크-호주 경기를 시작으로 19일간의 열전에 들어간다. 지난해 대회에서 4위에 그친 한국은 이번 대회를 통해 역대 첫 우승과 9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김학범호는 이번 대회 C조에서 중국(한국시간 9일 오후 10시 15분), 이란(12일 오후 7시 15분), 우즈베키스탄(15일 오후 7시 15분)과 잇달아 맞붙는다. 중국과 이란은 송클라에서, 우즈베키스탄은 랑싯에서 대결한다. 한국은 역대 전적에서 C조 나머지 국가를 모두 앞서고 있다. 중국을 상대로는 10승 3무 1패를 기록하고 있고, 이란과는 5승 1무 2패다. 또 우즈베키스탄과는 9승 1무 2패다. 역대 전적에서 앞선다고 방심할 수는 없다. A 대표팀과 달리 U-23 대표팀의 실력은 가늠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A대표팀 역대 전적에 9승 9무 13패를 밀리는 이란은 U-23 대표팀 맞대결에서는 한국이 5승 1무 2패로 앞서고 있고, ‘공한증’으로 대표되는 중국과는 역대 전적에서도 9승 1무 2패로 우세하다. 조별 리그를 1위로 통과하면 D조(베트남·북한·요르단·아랍에미리트) 2위와 8강전에서 만난다. 상황에 따라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과 ‘한국인 사령탑 맞대결’이 펼쳐질 수도 있다. 이렇듯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4강전에서 펼쳐진 ‘김학범-박항서 지략대결 시즌2’가 이뤄지게 된다. /연합뉴스



멀어지는 공 6일 런던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스널과 리즈 유나이티드의 FA컵 3라운드 경기에서 아스널의 리스 벨슨이 리즈 골키퍼를 제치고 슈팅을 시도하고 있다. 아스널이 1-0으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광주 FC 뒷문 강화 ... 측면수비수 김창수 영입

광주FC가 국가대표 출신 수비수 김창수(34)를 영입해 뒷문을 강화했다. 광주는 7일 부산아이파크, 울산현대 등에서 활약한 측면수비수 김창수를 자유계약으로 영입했다. 김창수는 태극마크를 달고 활약한 스타플레이어 출신이다. 2009년 시리아와의 친선경기를 통해 A대표팀에 데뷔한 김창수는 2012 런던올림픽에서 와일드카드로 출전해 동메달을 목에 걸었고, 2013 EAFF E-1 풋볼 챔피언십, 2014 브라질 월드컵, 2015 아시안컵(준우승), 2018 러시아 월드컵 지역 예선 등 국제대회에서 25경기를 소화했다. K리그에서는 울산, 부산, 전북 현대 등을 거치며 통산 258경기에 나와 8골 19도움을 기록했다. 2012년에는 K리그 베스트11 명단에 이름을 올리



도 했다. 김창수는 박진섭 감독과 도 인연이 깊다. 2004년 울산에서 프로에 데뷔한 김창수는 당시 리그 최고의 수비수였던 박진섭 감독과 한솥밥을 먹었으며, 부산(2009-2010년)에서도 양 측면에서 단단한 수비라인을 구축하기도 했다. 박진섭 감독은 “1부리그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경험 많은 선수가 필요한데, K리그뿐 아니라 국제 대회 경험도 많은 김창수는 딱 맞는 옷”이라며 “팀에 헌신적인 만큼 제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김여울 기자 wool@

활기 넘치는 전남 드래곤즈 ... 젊은피 추가 수혈

김효찬·박찬용·오현교·장성록을 시즌 프로무대 첫 데뷔 전남드래곤즈가 2020시즌 프로 무대에 뛰어들 ‘루키’ 김효찬, 박찬용, 오현교, 장성록을 영입했다. 광양제철고를 졸업한 전남 유스 출신의 김효찬(MF·22)은 U-17 연령별 대표로 뛰었고, 작년에는 U-23 아시안게임 대표 상비군, 덴소컵과 하계 유니버시아드에 대학연맹 대표로 활약했다. 순간 터프 스피드가 좋으며, 빠른 판단을 통한 창의적인 패스가 강점이다. 지난 시즌 경주한수원에 뛰던 박찬용(DF·24)은 대학 진학 후 J리그 에히메FC에 입단해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188cm·80kg의 좋은 신체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투지 넘치는 플레이로 전남 수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형적인 왼발잡이 오현교(DF·21)는 날카로운 킥으로 호남대에서 프리킥 전담 키커로 활약했다. 또한 판단력과 스피드가 좋아 1대1 상황에서 상대를 봉쇄하는데 탁월하다. 경희고 졸업 후 프로로 바로 콜업된 장성록(DF



·19)은 단단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많은 활동량과 수비 범위를 자랑한다.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경희고의 결승 진출에 큰 역할을 하는 등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주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